#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예술인 초청 특강

## 대화에 대하여(On Dialogue)

일시 : 2013년 3월 12일(화) 15:00-16:30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 홀
강사 : 톰 트레버(Tom Trevo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예술인 초청 특강

## 대화에 대하여(On Dialogue)

일시 : 2013년 3월 12일(화) 15:00-16:30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 홀
강사 : 톰 트레버(Tom Trevor)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톰 트레버 Tom Trevor



옥스퍼드 대학의 러스킨 칼리지와 런던의 골드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한 톰 트레버는 1990년대 초반 런던을 기반으로 시각예술가로 활동하는 한편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음악가이자 제작자로 활동했다. 1994년부터 5년간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국제시각예술협회 (Iniva, Institute of International Visual Arts), 웰컴 트러스트, 캠든 아트센터, 프로이트 박물관 등 다양한 기관과 장소에서 전시를 기획했다. 1999년에서 2005년 사이 톰 트레버는 영국 남서부 지역의 엑시터에 있는 스페이섹스의 디렉터로 일하며 전시장 안팎에서 5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20년 동안 100여건이 넘는 국제교류전을 기획했으며, 2005년부터 아르놀피니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대화에 대하여 On Dialogue



고맙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한영국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에 세 차례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미술의 팬이 되었고,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 자문을 수행하고 오늘 이렇게 강연까지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강연 시간이지만 제가 1990년대부터 기획했던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지난 20년 동안 미술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술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술가의 독백monologue을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미술관의 기능이었다면, 이제는 의미 창출을 위한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미술관의 주요한 일이지만, 이와 함께 관람객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미술계가 독백에서 대화로 변한 것 외에도, 맥락을 고려한context-based 프로젝트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소 특정적인site-specific 전시를 개최하는 것과 아울러, 갤러리 밖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대중의 참여를 증진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인 '대화'dialogue에 중점을 두는 미술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르놀피니Arnolfini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르놀피니는 모더니즘 후기인 1961년에 설립되었고, 다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복합문화예술기관입니다. 아르놀피니가 위치하고 있는 브리스톨은 런던에서 서쪽으로 100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항구를 끼고 있어서 과거에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 아르놀피니

거의 모든 미술관과 아트센터는 모더니즘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화이트 큐브'white cube 라는 전형적인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놀피니 역시 화이트 큐브를 갖고 있습니다. 2009년 아르놀피니에서는 한국 작가 양혜규의 <홀리데이 포 투모로우>Holiday for Tomorrow 작품 전시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VIP's 유니온>VIP's Union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 전시를 위해 브리스톨 지역 유지들의 의자를 직접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 양혜규, *Holiday for Tomorrow*, 2009



▲ 양혜규, *VIP's Union*, 2011

아르놀피니는 화이트 큐브뿐만 아니라 '블랙 박스'black box인 극장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퍼포먼스나 라이브 아트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화이트 큐브와 블랙 박스라는 모더니즘의 유산을 아르놀피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아르놀피니 개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갤러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강연 후반부에 갤러리 밖에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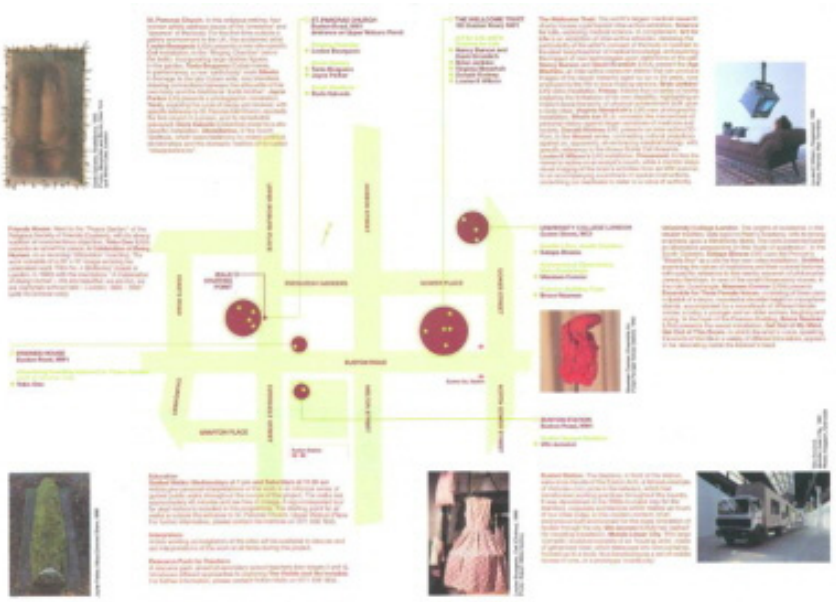


▲ 아르놀피니 내부

## 1.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re-presenting the body in contemporary art and society, 1996

1996년에 제가 기획했던 프로젝트는, 런던 유스턴Euston 지역의 비예술적인 장소non-art sites에서 진행했던 <더 비지블 앤드 더 인비지블>The Visible and the Invisible입니다. 유스턴에 있는 여러 장소를 전시 공간으로 삼았고 전시 주제는 '몸'이었습니다. 종종 예술가들이 자신의 몸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들은 신체라는 주제를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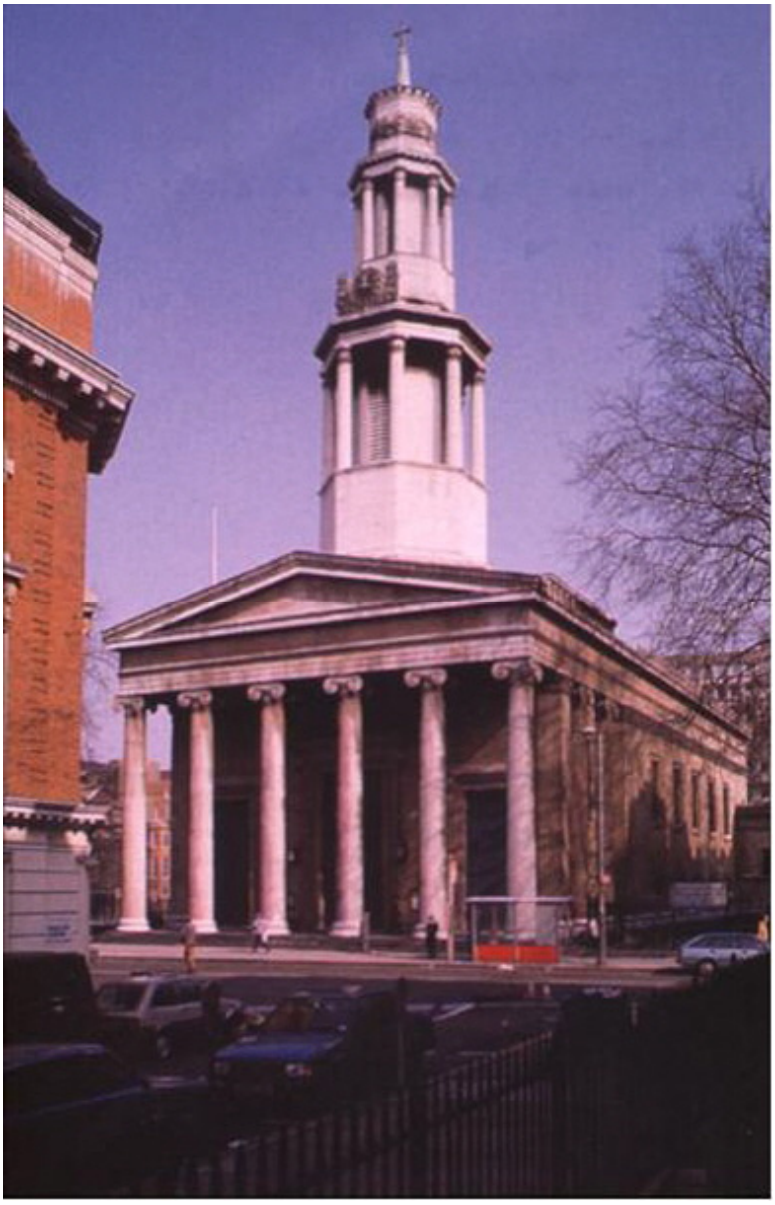
유스턴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몸을 표상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세인트 판크레스 교회St Pancras Parish Church, 평화 캠페인으로 유명한 프렌즈 하우스Friends House, 의료자선기관인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 대학교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등 입니다. 저는 각각의 장소가 가지는 맥락을 고려해서 작가들이 신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brochure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Paul Valéry의 몸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폴 발레리는 신체를 세 가지로 개념화했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the Visible Body, 즉 사진에 찍히는 표면적인 몸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로서의 신체the Mechanical Body로서 의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나의 몸My Body, 바로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몸입니다. 이 세 가지 신체에 대한 개념이 제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었고, 작가들은 나의 신체, 예술가로서의 신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인트 판크레스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란 탄생, 혼인, 죽음 등 우리의 몸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 교회 건물 상단에는 팔각형의 종실ringing chamber이 있는데, 이 안에는 교회 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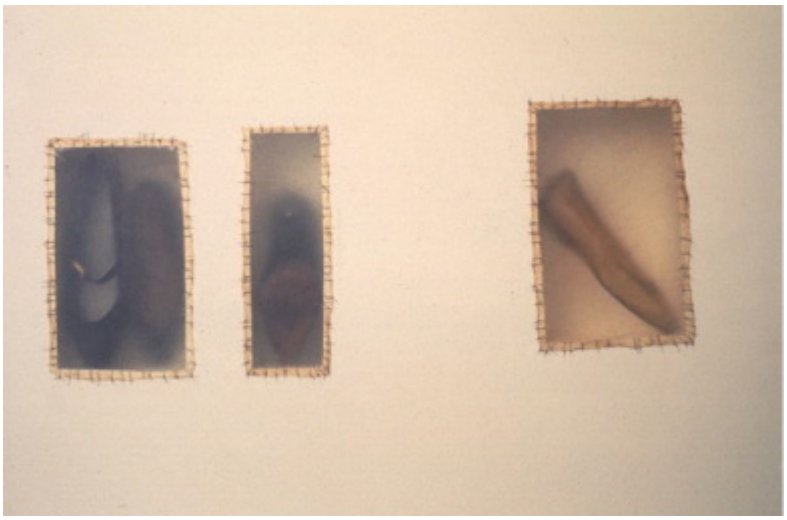
▲ St Pancras Parish Church, London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는 이 종실 내에 자신의 옷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이 작품은 루이즈 부르주아가 자기 옷을 작품에 도입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연극적인 공간으로 실제로 15분마다 종이 울리는 곳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가족의 역사와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족이 있는데, 이것은 작가의 여자 형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 아래로 내려가면 신부님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도리스 살세이도 Doris Salcedo라는 작가의 설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출신 작가로, 그의 작품은 콜롬비아에서 경찰에게 끌려가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로부터 신발을 기증받아 만든 것입니다.[1)]



▲ Louise Bourgeois, *Bodies*, 1996



▲ Doris Salcedo, *Atrabiliarios*, 1996

쿠바 작가인 타니아 브루게라Tania Bruguera는 교회 밖 정원에서 망명한 쿠바 작가인 아나 맨디에타 Ana Mendieta에게 경의를 표하는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아나 맨디에타의 유명한 작품인 실루엣 주위에 화약을 뿌려 놓고 태우는 과정을 실현하면서 자신의 실루엣을 태워 땅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1) 도리스 살세이도는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 빈 공간에 가벽을 설치하고 구멍을 뚫어 신발을 넣은 후, 그 위에 양피지를 덮어 바느질을 했다.

한편 제인 파커Jayne Parker는 교회 지하실crypt에서 영상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람객은 예배당 통풍구를 통해 녹색의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 지하의 다른 방에 이끼가 무성하게 낀 무덤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 Tania Bruguera, *Silueta*, 1996



▲ Jayne Parker, *Tomb*, 1996

다음으로는 프렌즈 하우스에서 진행한 작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코 오노Yoko Ono는 그의 유명한 영화 <보틈스>Bottoms 제작 3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임을 축하하는 작품으로 광고판 형식으로 설치되었는데, 이 광고판은 몇 분마다 바뀌면서 고양이 사료나 담배와 같은 다른 광고 이미지들도 보여주었습니다.



▲ Yoko Ono, *A Celebration of Being Human*, 1996

다음은 웰컴 트러스트에서 전시한 작품입니다. 웰컴 트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의료 자선기관으로, 이곳에서 <아트 포 라이프>Art for Life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가들은 기계적인 몸이라는 맥락에서 자신의 몸을 탐구한 작업들을 전시했습니다.




▲ Brian Jenkins, *Frenzy*, 1996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는 브라이언 젠킨스Brian Jenkins라는 작가는, 관람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루이즈 윌슨Louise K. Wilson은 누워서 뇌를 스캔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낸시 버슨Nancy Burson은 관람객들이 자신의 나이든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버지

니아 니마르코Virginia Nimarkoh는 웰컴 트러스트 직원들이 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조직도를 구성했습니다. 도널드 로드니Donald Rodney라는 작가는 겸상 적혈구 빈혈증sickle cell anaemia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자신의 실제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 Louise K. Wilson, *Possessed*, 1996



▲ Nancy Burson, *Age Machine*, 1996



▲ Virginia Nimarkoh, *Where Am I?, II*, 1996



▲ Donald Rodney, *Wound*, 1996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소는 학문을 대표하는 곳인 대학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와 정신을 나누어 생각할 때, 대학교는 정신, 특히 지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작가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린 코너Maureen Connor는 교내 기상관측소observatory에 작품을 설치했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립스틱으로 만든 혀와 후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내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이 작품은 동물적 상태에서의 인간의 소리를 관측소라는 맥락에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 Maureen Connor, *Ensemble for Three Female Voices*, 1996

브루스 노먼Bruce Nauman의 작품은 "get out of my mind, get out of this room"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중에는 거의 소음처럼 들리게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타파 비스워즈Sutapa Biswas는 비들 박스the Beadle's box를 위한 영상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 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몸을 보존해 둔 곳 반대편 위치에 작품을 설치했는데, 작품은 한 여자가 울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벤담의 몸은 그의 유언에 따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보존되어 있지만, 그의 머리는 과거에 학생들이 축구 시합에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 Bruce Nauman, *Get out of my mind, Get out of this room*, 1996



▲ Sutapa Biswas, *Untitled*, 1996

지금까지 소개한 <더 비지블 앤드 더 인비지블>은 다양한 장소적 맥락에서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틀을 제공한 프로젝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17년 전 당시 제가 큐레이터로서 관람객의 참여, 즉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장소 특정적인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큐레이팅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2. The Home Series, SPACEX, 1999-2001

제가 일했던 스페이셱스SPACEX에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이셱스는 엑시터Exeter라는 도시에 있는 미술관으로, 크지 않은 규모이다 보니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엑시터는 미들 잉글랜드Middle England에 속해 있는데, 미들 잉글랜드라는 개념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도시 크기나 중요도에 있어서 모두 중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도시 안에서 잉글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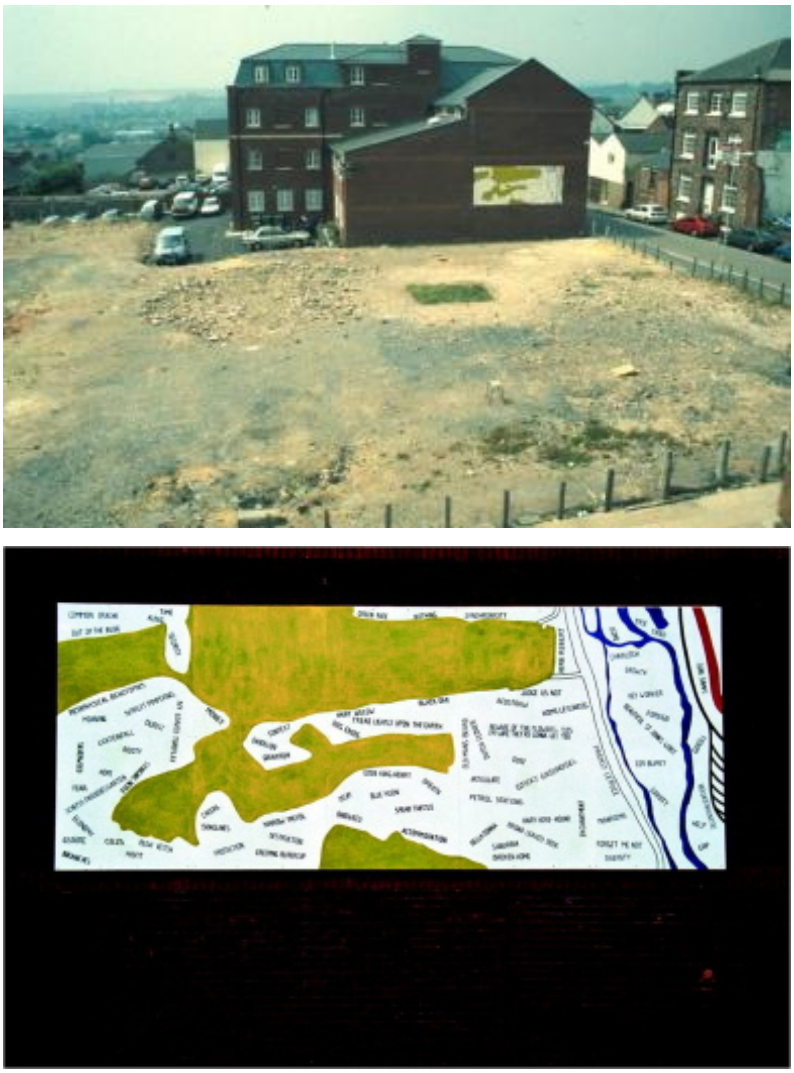
먼저 <더 홈 시리즈>The Home Series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로이스 바인버거Lois Weinberger의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로 잡초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1997년의 '도큐멘타 10'Documenta X을 위해 여러 동유럽 지역에서 수집한 잡초들을 카셀의 기차역 선로에서 키워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잡초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볼 수 있고 도시 안에 늘 존재하는 것인 동시에 식물 생태계에서 감추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번 다시 나타나고야 마는, 일종의 사회 밑바닥 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시터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미술관 근처에 있는 나대지로, 이곳은 잡초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로이스 바인버거는 남성 노숙자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엑시터 외곽에 있으며 지금은 황폐해진 폴티모어 하우스Poltimore House라는 저택에서 식물을 뽑아다 이 자리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과 함께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이 작업을 통해 엑시터라는 도시의 '가장자리'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숙소 건물 벽 위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도시에서 자라는 여러 종류의 식물 및 잡초 이름을 담고 있었고, 또한 작업에 참여한 노숙자들에게 어떤 단어를 포함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고 그들이 제시한 단어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 Lois Weinberger, *Edge of the City*, 2000

2) 톰 트레버는 미들 잉글랜드라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의해 엑시터의 다양한 가치, 역사, 커뮤니티 등이 배제되고 중화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Trevor, T. (2006) *Homeland: Making Meaning in Middle England*.



▲ Lois Weinberger, *Edge of the City*, 2000

또 다른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출신 작가로 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작업을 하는 시가릿 랜더 Sigalit Landau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업은 트럭을 타고 엑시터 시내와 바닷가를 돌아다니는 일종의 여행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성냥팔이 소녀'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엑시터 도심에서 엑스머스Exmouth라는 바닷가 마을로 이동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는 소녀가 너무 추워서 성냥을 계속 태우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사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가릿 랜더는 성냥팔이 소녀의 웅크린 모습을 아이스 롤리ice lollies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레미콘 트럭을 일종의 뮤직 박스로 탈바꿈시키고, 성냥팔이 소녀의 모습을 한 채 이 뮤직 박스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 롤리를 선물했습니다. 과일향이 나는 아이스 롤리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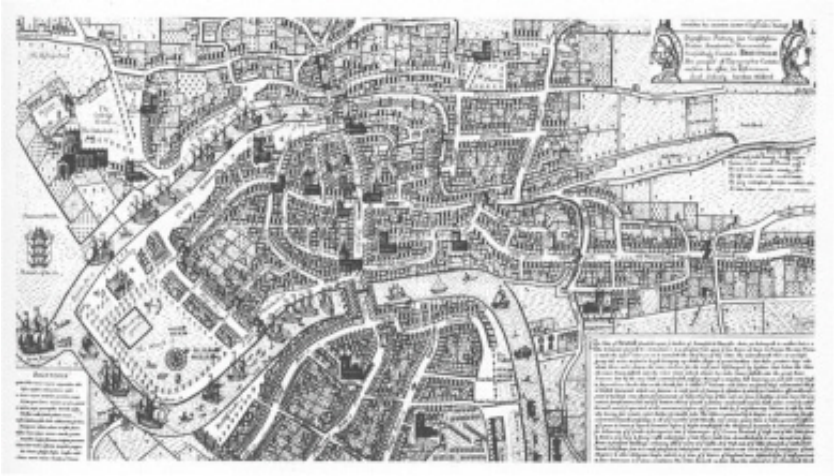
▲ Sigalit Landau, *Somnambulin*, 2000

지금까지 대중과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렸고, 이제부터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브리스톨의 아르놀피니에서 2005년부터 진행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를 설명하겠습니다.

## 3. Directorship of Arnolfini

강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술관과 같은 예술기관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에 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놀피니가 지금의 건물로 이전한 것은 1975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거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의 주요 경제 활동이었던 무역이 세계화globalisation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이 브리스톨 외곽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년 전 브리스톨은 매우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이 도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브리스톨에서 가장 발달했던 무역이 노예무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 1673년경의 브리스톨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컨테이너 교역은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항구는 여섯 개의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문화와 관련해서 세계화를 이야기할 때, 특히 대중매체는, 이제 유럽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종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젝트 <포트 시티>Port City: On Mobility and Exchange는 영국에서의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7년에 기획되었습니다. 이것은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를 형성한 역사를 통해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 세계화, 교류 등을 생각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시각에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작가 우슬라 비먼Ursula Biemann은 아프리카 사하라에서 유럽으로의 이민 경로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비디오 작품을 갤러리 내에서 전시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최초의 범대서양적인 국제 교역은 노예무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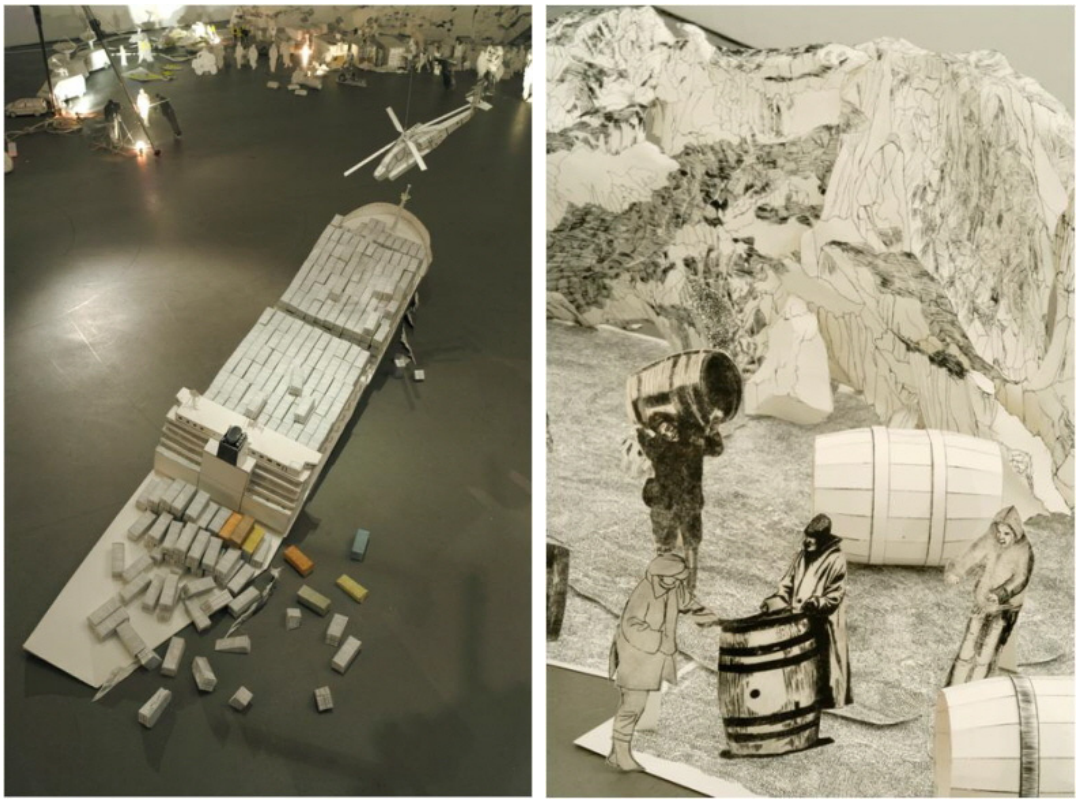
▲ Ursula Biemann, *Sahara Chronicle*, 2007

200년 전 캐러비안 지역에서 들어온 향신료, 설탕 등이 거래되면서 브리스톨은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역의 역사가 작품에서 다루어졌는데, 서아프리카 출신 작가인 메샥 가바Meschac Gaba는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지마할, 구겐하임 미술관 등 전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모두 설탕으로 만들어 보여주었습니다.



▲ Meschac Gaba, *Sweetness*, 2007

멜라니 잭슨Melanie Jackson은 컨테이너 선박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브리스톨 인근 지역인 데본Devon에서 침몰된 선박인 '엠에스씨 나폴리'MSC Napoli를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배에 실려 있던 화물들이 해변으로 휩쓸려 오면서 사람들이 물건들을 훔치려고 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이와 에칭이라는 전통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했지만, 17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 Melanie Jackson, *The Undesirables*, 2007

갤러리 밖에서 진행되었던 마리아 테레자 알베스Maria Thereza Alves의 프로젝트 <시즈 오브 체인지>Seeds of Change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마리아 테레자 알베스는 브리스톨의 플로팅 하버Floating Harbour 구역[3]을 돌아다니면서 '발라스트'ballast가 어디에 버려져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발라스트는 화물이 적을 때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배 밑에 싣는 바위나 흙 또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바닥짐을 말합니다.

에이번 강river Avon 둑에 버려져 있는 발라스트를 조사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발라스트에 식물의 씨앗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앗들이 아직 싹을 틔우지 않은 채 수백 년 동안 발라스트에 붙어 있는 상태로 살아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앗들을 꺼내 흙에 심어서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싹이 나는 식물들은 100년 전 노예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실제로 살아있던 식물의 씨앗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에이번 강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강물이 빠지는 동안에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이주일이 넘도록 대형 선박들이 묶여 있어야 했고, 밀집해 있는 선박들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았다. 결국 강물을 막아 항구를 만들자는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플로팅 하버가 생겨났고, 그 결과 선박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에이번 강 주변

마리아 테레자 알베스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라스트에서 씨를 채취하고 식물로 키우는 작업을 브리스톨 내 다양한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물론 자라난 식물들은 잡초 정도에 불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도시의 존재 이유였던 교역의 역사를 이 씨앗이 담고 있고, 그러한 역사를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람들이 씨앗을 통해 역사를 끄집어내고 구체화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솔라 칼리'라는 식물은 서아프리카 시에라 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식물인데, 이 식물의 씨앗이 노예와 함께 브리스톨에 건너와 싹을 틔웠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무척 흥미로워 했습니다.



▲ Maria Thereza Alves, *Seeds of Change*, 2007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처럼 살아 숨 쉬는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브리스톨에 있는 현수교Clifton Suspension Bridge 아래에서의 정원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고, 아울러 브리스톨 대학교 식물원과 협업하여 이 외래종 식물들을 심고 키워 정원으로 가꾸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원은 사람들 간의 대화를 쉽게 이끌어 내는데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식물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역이나 노예 제도 등과 같은 역사는 다소 복잡하고 심각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이처럼 식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이 보다 쉽게 역사를 이야기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5년 동안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새로운 정원인 '플로팅 가든'floating garden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화물운반선barge을 수리해서 물 위에 떠 있는 정원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 강물 위에서 완벽한 정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방문하였고, 식물의 이동이나 사람들의 이주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보트를 타고 플로팅 가든에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4)]



▲ Maria Thereza Alves, *A Floating Ballast Seed Garden*, Bristol Floating Harbour, 2012

다음으로 2008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 <파 웨스트>Far West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술관은 대중에게 예술을 제공하고, 화이트 큐브 안에서의 관찰자이자 비평가라는 역할을 대중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미술관 안에서 무엇인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낯설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중은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예를 들어 보자면, 사람들은 항상 소비자 또는 구매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 웨스트> 프로젝트에서 미술관을 콘셉트 스토어concept store, 다시 말해 백화점처럼 바꿔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http://www.arnolfini.org.uk/learning/projects/ballastseedgarden

우선 쇼핑센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아르놀피니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브랜딩'branding입니다. 중국 작가 주 빙Xu Bing은 프로젝트 로고를 만들었고, 거닐라 클링버그Gunilla Klingberg는 슈퍼마켓과 할인점 브랜드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미술관 현관문에서 보이는 패턴은 슈퍼마켓 체인인 '스파'SPAR의 로고를 활용한 것입니다.




▲ Xu Bing, *Logo of Far West*, 2008 & Gunilla Klingberg, *Brand New View*, 2008



▲ Michael Lin, *Walls at The Arnolfini*, 2008

마이클 린Michael Lin은 건물 전체를 벽지로 장식하여 화이트 큐브의 갤러리를 일종의 '경험 경제'experience economy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확실히 <파 웨스트>는 소비주의consumerism를 비판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5]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경험 경제, 즉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경험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슈퍼마켓과 같은 장소가 연극적인 공간으로 변하면서 일종의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참여가 요구되며, 마지막에는 무엇인가 기념될만한 것을 반드시 구입해서 나가도록 강요하는 소비주의를 비판

5) <파 웨스트>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고, 이 프로젝트에는 영국과 미국 작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출신 작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http://www.arnolfini.org.uk/whatson/far-west

한 것입니다. 저희는 교환, 생산, 소비 등 경제적인 행위와 함께, 대량 생산된 값싼 제품에서부터 예술가들이 특별히 고안해서 만든 제품들까지 관람객들이 직접 구입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계산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오 페이Cao Fei는 중국의 건물들을 활용해서 가상 도시를 온라인상에서 구축했습니다. 소이 프로젝트SOI Project라는 두 명의 일본인과 한 명의 태국인 팀은 관람객이 종이 과일을 직접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관람객은 작품의 생산자, 즉 과일 생산 노동자가 되어 볼 수 있었고 과일을 다 완성하고 난 후 자신이 만든 종이 과일을 구입하거나 실제 과일과 교환해 갈 수 있었습니다. 소이 프로젝트의 작업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 Cao Fei, *RMB City*, 2008



▲ SOI Project, *Fruits project*, 2008

중국의 류 딩Liu Ding이라는 작가는 일련의 풍경화 작품을 가지고 설치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광저우의 다펜Dafen이라는 회화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작품을 이용했는데, 그곳은 주문을 받아 작품을 제작하는 일종의 그림 공장입니다. 유럽의 풍경을 묘사한 그림들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갤러리에 걸렸고, 류 딩은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구입해서 집에 가지고 돌아가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Liu Ding, *Products*, 2008

피에르 휴Pierre Huyghe와 필립 파레노Philippe Parreno는 만화 캐릭터인 '앤리'AnnLee를 네온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언마스크 그룹Unmask Group, 데이비드 블랜디David Blandy, 수라시 쿠솔웡Surasi Kusolwong, 요코 오노Yoko Ono 등이 <파 웨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파 웨스트> 프로젝트는 관람객과의 다채로운 관계 형성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람객은 관찰자 또는 비평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오늘날의 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 웨스트> 프로젝트는 아르놀피니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쇼핑센터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브리스톨 시내에 있는 브로드메드 쇼핑센터Broadmead shopping centre 안에 <파 웨스트 메트로>Far West Metro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쉽게 둘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서 작가인 멜라니 잭슨Melanie Jackson은 홍콩의 조스 숍Joss shop처럼 공간을 꾸미고 망자를 기리기 위해 태우는 종이 모형Joss paper을 홍콩에서 구입해와 전시해 놓고 사람들이 직접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파 웨스트> 프로젝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획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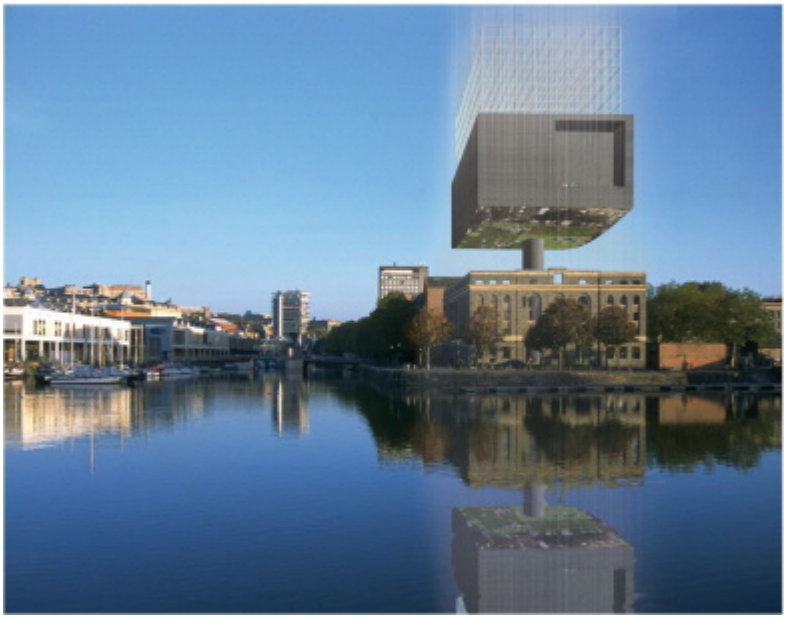

▲ Melanie Jackson, *Far West Metro*, 2008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아르놀피니 개관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인 <뮤지엄 쇼>Museum Show의 일환으로 2011년에 진행된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의 작업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열기구를 제작했습니다. 어린이, 학생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으로 해가 비치자 열기구가 부풀면서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 Tomás Saraceno, *Museo Aero Solar*, 2011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구상됩니다. 듀오 작가인 캐트린 버메이어Katleen Vermeir와 로니 헤이어맨스Ronny Heiremans는 삶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이라는 미래의 아르놀피니 모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6] 저는 미래에도 미술관은 화이트 큐브 안에서 미술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전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술관은 관람객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끄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것입니다.



▲ Katleen Vermeir & Ronny Heiremans, *A proposal for the Arnolfini*, 2009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이들의 작업은 2009년 4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더 굿 라이프>The Good Life에서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hegoodlife-collection.com에서 볼 수 있다.

## 질의응답

(진행 : 고원석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고원석** : 관객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에, 이번 강연을 예약하신 분들의 질의를 정리한 내용으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통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큐레이터는 관람객과의 소통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자와 소통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관람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가와의 소통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톰 트레버 : 의미를 만드는 일은 사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란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큐레이터로서 작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큐레이터는 작가의 개성이 발전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관객과의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아르놀피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중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작가의 존재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작가와 대중간의 의미 있는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미술관과 큐레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곧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식물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이끄는데 매우 유용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식물이 예술적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고원석** :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민과의 공유와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 노예무역과 같은 불편한 역사를 프로젝트에서 접근할 경우, 특히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작가가 그러한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작품에서 다루고 그것을 지역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반발하는 지역 주민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톰 트레버 : 저는 부끄러운 역사일수록 보다 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우리 생활의 기반을 어떻게 이루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많았고 어두웠던 과거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현실과 연결 지어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다양한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가들이 그러한 것들을 더욱 끄집어내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포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을 말씀드리자면, 작품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관람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고, 작업 자체도 사람들의 참여와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으로 만든 작품의 경우, 비록 어두운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엔터테인먼트적인 즐거움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작가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이러한 종류의 작업이 일종의 사회봉사social work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나 작품의 특성이 살아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유도되어야 합니다.**

**고원석** : 세 번째 질문은 한국 현대 미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톰 트레버 관장님께서 고양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셨고, 작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자문도 하신 바 있습니다. 톰 트레버 관장님이 갖고 계신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인상 혹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톰 트레버 : 한국 현대 미술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양 스튜디오에 갔을 때에도 재미있는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 미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국은 다소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대 미술의 요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국 현대 미술에는 섬세한 감수성이 담겨 있고 작가들의 특별한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한국 현대 미술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관 객** :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해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톰 트레버 : 작가 선정 과정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제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작가를 선정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며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가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작가인 양혜규씨와 아르놀피니에서 전시를 했을 때, 국제적인 명성에 비해 정작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작가들**

**과 만나는 일은 제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관 객** : 오늘 강연을 통해 아르놀피니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술사라는 것이 일종의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가치의 높고 낮음을 규정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톰 트레버 관장님께서 지금까지 수행하신 프로젝트들이 200년 정도 후인 미래에는 미술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톰 트레버 : 저는 작가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입니다. 미술사적 규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잡초를 가지고 한 프로젝트의 경우, 잡초는 사실상 가치가 별로 없는 재료 아닙니까? 하지만 잡초를 통한 작업은 지식의 위계에 대한 일종의 개념적인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고를 유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예술에 반영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제가 관심을 두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년 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면,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간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도 있고 작업들이 모두 디지털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목소리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도전하는 작업이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관 객** :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떻게 참여자를 선정하십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후 참여자들이 평가에도 참여하게 됩니까?

**톰 트레버 : 커뮤니티 참여 프로젝트가 사회봉사적인 성격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가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작업을 진행하고 끝내고 나면 그냥 가버리는, 한 마디로 '낙하산'식 프로젝트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브리스톨에서 저희가 수잔 레이시Suzanne Lacy라는 작가와 함께 해오고 있는 <지역 지식 대학>The University of Local Knowledge이라는 프로젝트는, 브리스톨 남부 지역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5년 동안 실행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발전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커뮤니티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선정되고 그들이 평가에도 개입하게 됩니다. 지역 기반 프로젝트와 달리 국제 사회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르놀피니 Arnolfini



1961년 영국 브리스톨에 설립된 아트센터로 시각예술, 퍼포먼스,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함께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총 다섯 개의 전시장과 공연 및 영화 상영이 가능한 극장, 도서관,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www.arnolfini.org.u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예술인 초청 특강**

**대화에 대하여 (On Dialogue)**

본 자료집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한영국문화원 공동주최로 2013년 3월 12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던 동명의 특강 내용 및 관객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연 내용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석을 달았습니다. 전시 및 프로젝트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작가명, 작품명, 제작년도를 표기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에 들어간 글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획 및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강사 : 톰 트레버 (Tom Trevor, 아르놀피니 관장)
모더레이터 : 고원석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통역 : 이경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동시통역사)
번역 및 편집 : 문호경 (문화 컨설턴트, 『real 영국은 주말에 오픈한다』저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 02.760.4500/4600 www.arko.or.kr